# 번뇌있기에 깨달음도 있는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㉝ 대승도(大乘道)

〈원문〉 "만약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따라 믿고,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진 사람은 밝은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고 최후의 완성된 경지를 얻게 되느니라. 법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갖춰진 근(根)과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경계를 관찰하며, 업을 지어 과보(果報) 받는 것을 관찰하며, 아라한의 무명의 잠(眠)을 관찰하며, 마음이 자재한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관찰하며, 아라한·벽지불·대력(大力)보살들의 성스럽고 자재한 신통을 관찰하느니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공교로운 관찰을 성취하고 내가 멸도한 뒤 다음 세상에서 나의 제자가 따라 믿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밝은 믿음을 의지하여 법의 지혜를 따르면, 성품이 깨끗한 마음이 번뇌에 물들었다 해도 최후의 완성된 경지(究竟)를 얻게 되느니라. 이 최후의 완성된 경지라는 것은 대승도(大乘道)에 들어가는 원인이니, 여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큰 이익이 있어서 깊고 깊은 이치를 비방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강설〉 불교는 중생의 미혹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계·정·혜 삼학(三學)에서도 혜학이 불교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성취가 곧 불법의 성취이다. 이 장에서는 법의 지혜를 따르며 최후의 완성된 경지를 얻은 사람이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밝혀 놓았다. 믿음이 더욱 깊어져 법의 지혜를 따라 최후의 완성된 경지인 대승도에 들어간다 하였다. 대승(大乘)은 제일승(第一乘)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부파불교의 한계와 폐단을 불식하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불교를 흥기시킨 후 이전의 가르침과 구별하여, 보다 뛰어난 가르침이란 뜻에서 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는 중관과 유식이 일어나고 그 후 밀교로 이어져 대승이 선양되었고, 중국에 와서는 많은 종파가 형성되면서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선종, 정토종을 포함한 중국에서 일어난 13종이 모두 대승이었다. 〈승만경〉에서도 〈화엄경〉, 〈법화경〉과 마찬가지로 극구 대승을 찬양하고 권장하고 있다. 세 경전에서 모두 성문, 연각 이승들은 대승을 모른다고 수행의 정도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승경전의 결집에 대해서 〈지도론〉에서는 전설적인 설화로 기술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문수와 미륵 같은 대보살들이 아난과 더불어 대승경전을 결집했는데 성문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들으면 혼란만 일으키고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영축산에서 소승삼장을 결집할 때에 아난이 대승을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승의 특징은 다불신앙(多佛信仰), 법공사상(法空思想), 보살도(菩薩道)로 요약된다.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고 소승이 증득하지 못했다는 제법이 모두 공하다는 법공을 강조하며 이타원력을 가진 보살의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았다.

경의 본문에서 번뇌에 물든 마음이 결국 최후의 완성된 경지의 수행을 이룬 그 마음이라는 말을 하였다. 대승에서는 번뇌를 무조건 끊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굳이 말하자면 이용할 대상으로 본다. 〈유마경〉에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구할 수 없듯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비유가 나온다.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다. 선가에서 말하는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신심이 깊어지고 마음이 더욱 밝아지면 그 속에 일체 불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로 번뇌에 물들어도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의 본문 가운데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것을 관찰하는 등 다섯 가지 관찰을 예시했는데 이는 마음을 관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인과법을 관찰하고 수행이 관심(觀心)으로 깊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달마대사가 남긴 말에도 '마음을 관찰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의 중심'이라 하여 '觀心一法이 總攝諸行'이라 하였다. 또 이심수심(以心修心)이라 하여 마음으로써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訣)에도 말하고 있다. 마음이 마음을 닦는 비결(祕訣)이라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전도몽상 깨뜨리고 진여본성 깨달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불자 여러분! 진여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는 따로 부처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법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구(經句)는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진실한 마음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해 내는 유심(唯心)의 세계이며 마음 밖에 따로 특별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一切唯心造 心外無別法]"라고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음을 믿지 않고 100년도 견디기 어려운 몸뚱이를 믿고 삽니다.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때가 되면 인간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됩니다. 윤회 속에서 아무리 좋은 몸을 갖고 왔을지라도 떠나 갈 때는 목석(木石) 버리듯 몸뚱이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와는 달리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본질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꿈속에서 꿈을 꾸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 같은 마음이 감춰져 있다고 해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생멸하는 중생심이 함께 갖춰진 이중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별망상하는 생멸심을 멈추고 헐떡이는 마음을 내면으로 되돌려 마음의 본질을 직관(直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멸하는 중생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을 회복하여 우주 속에 대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생심 이전의 마음은 이미 부처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되기 이전에는 이미 부처입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구름 위의 청정한 하늘은 전혀 때가 묻지 않는 하늘인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비록 온갖 번뇌 망상으로 뒤 덥혀있지만 진여본성은 전혀 물듦이 없이 반야지혜를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 진여본성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행을 통해서 전도몽상의 마음을 깨뜨리고 진여본성을 깨달아야만 대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청정한 하늘을 만나려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을 찾아들어가야 하듯이 내 마음 속의 진여본성을 찾으려면 생멸하는 중생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진여본성은 중생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담긴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물이 맑아지듯이 내면에서 요동치는 분별망상을 멈추고 마음을 관조(觀照)하게 되면 생멸하는 마음 그 밑바닥에 본래 평등한 불생불멸의 진여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㉝ 학인의 경 1

## 스스로 알아차림 없는 알아차림

**"아난다여, 까뻴라밧투의 싸끼야족들에게 학인으로서 길을 가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큰 옷을 네 겹으로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부처님의 몸을 언급한 것에 대해 들을 때가 있다. 〈금강경〉에는 탁발에서 돌아와 자리를 펴고 앉으시는 과정이 있고,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고도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수행자들은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소리와 형상이 아닌 그것도 부처님의 몸을 떠나 있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참 법문을 스스럼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러주신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미 있는 말씀은 쉽게 알아지겠지만, 이런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등이 불편하여 쉬려고 한다." 생로병사를 완전히 뛰어넘은 분이 등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다. 가르침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나는'이라고 지칭하는 말의 핵심을 바르게 간파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놓쳐 버리게 된다.

'나도' 지금까지 연재하면서 '나'라는 언어를 배제하면서 글을 적고 있다. 눈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나'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가르침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려면, '투명유리' 밖의 대화인 줄 알아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

만약 유리 안의 소리로 듣는다면 가르침을 전달함에 있어 마지막 소리를 오해하여 듣게 될 것이다. 유리 밖 '나'의 지칭은 인연으로 있는 것에 대한 지칭이다. 그 인연의 진짜 모양이 있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것으로서 지칭되어지는 것이다. 지칭하는 바 없는 '나'를 지칭하고, 또 그렇게 듣는 것은 앎이 온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 '자고 일어나는 것'을 수행으로 알기도 어렵다.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달리 잠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행하다보면 몸이 지치고 나서야 잠이 들기 때문에, 피곤함으로 바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잠자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도 잘못하게 된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바르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수행하고 있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눈을 감고 뜨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몸과 같이 수행할 때, 자고 일어나는 일을 철저히 신경 썼던 기억이 있다. 자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자 한 것은 '나'에 대한 연속성 때문이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화두가 끊어짐이 생기지 않았는데, 눈을 감고 잠을 자면 화두가 끊어져버렸다. 거기에 의문이 생겨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다 잠을 '내'가 자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아는 때에 이르니, 화두를 들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화두가 그대로 들리게 되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생겼다. 그 때부터 화두는 저절로 들리게 된 것이다.

'깊이 새겨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셨다'는 가르침은 몸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알아차림이며, 몸으로 일어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누우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는 항상하여 알아차림 없이 항상 알아차려져 있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